

『춘향전』 ‘십장가’ 연구*

- 춘향 항거 의미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

서유석**

<차 례>

1. 서론
2. 『춘향전』 ‘십장가’의 존재 양상
3. 『춘향전』 ‘십장가’에 나타나는 춘향 항거의 의미 변화
4.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춘향전』의 눈대목으로 꼽히는 ‘십장가’에 주목하여 그 이분별 존재 양상을 살피고, ‘십장가’에 구현되어 있는 춘향 항거의 의미 변화 양상을 고찰해보고 있다.

먼저 「남원고사」 계열의 ‘십장가’는 상업적 목적을 위해 축약되고 삭제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동시에 작품의 장형화를 위해 확대되기도 한다. 이는 세책본과 방각본이 가지고 있는 상업적 목적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완판본 계열에서 나타나는 ‘십장가’는 춘향의 신분 변화와 아울러 그 항거의 의미가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사회적인 것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십장가’를 통해 춘향의 항거를 가장 잘 드러낸 이본은 「완판 84장본」으로 볼 수 있다. 「옥중화」계통본은 대전통편 상고대목과 재판 절차에 대한 묘사를 통해 개인의 권리를 법이라는 공적 테두리 안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십장가’에 드러나는 춘향 항거의 의미는 먼저 기생 춘향과 양반 도령간의 이룰

* 본고는 2009년 2월 한국고전연구학회 제 65차 학술대회에 발표된 원고를 다듬은 것이다. 부족한 논의에 많은 제언을 던져주신 토론자 조현우 선생의 제언에 힘입은 바 크다. 이 자리를 통해 감사드린다.

** 경희대학교 강사

수 없는 사랑과 이를 지키고자 하는 한 여성의 노력, 그리고 그에 따른 정절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한다. 하지만 기생이라는 춘향의 신분은 두 사람의 애정을 갈라놓는 중요한 문제로 작용하였고, 여기에서 춘향의 항거는 신분의 모순을 공박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회적 의미를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완판본의 변화에서 상세히 드러나는데, 완판본은 춘향의 신분을 격상시키고, 이를 통해 춘향의 항거가 기생 춘향 개인의 문제가 아닌 평민 춘향, 즉 일반 민중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새로운 민권 의식 혹은 개인의식에까지 나아가 새로운 항거의 의미를 획득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러한 개인적 권리에 대한 새로운 의식은 두 사람의 애정과 그 애정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미를 약화시켜 결국 다시금 춘향과 이도령의 개인적 사랑의 문제로 환원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이러한 춘향 항거의 의미 변화 중심에는 ‘십장가’가 놓여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주제어 춘향전, 십장가, 항거, 근대적 지향, 개인의식

1. 서론

본 연구는 『춘향전』¹⁾ ‘십장가’ 대목의 존재 양상을 간략하게 살피고, ‘십장가’에서 구현되는 춘향 항거의 다양한 의미망을 고찰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춘향전』은 100여종이 넘는 다양한 이본군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십장가’는 『춘향전』의 눈대목으로 대부분의 이본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사설이다.²⁾ 이 뿐만 아니라 ‘십장가’는 조선 후기 유흥 공간에서 집장

1) 본고에서 쓰고 있는 『춘향전』이라는 표기는 판소리 사설과 판소리계 소설을 통해 드러나는 ‘춘향 이야기’를 모두 포함하는 대개념으로 사용한다.

2) ‘십장가’는 『춘향전 이본 전집』(김진영, 김현주 외, 도서출판 박이정, 1996~2004)에 실려 있는 109종의 이본 가운데 95종에 실려 있다.

가, 형장가 등의 잡가로 즐겨 불렀다는 연구 성과도 확인해볼 수 있다. 하지만 ‘십장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망을 생각해 볼 때, 특히 형장의 이픔을 노래한 ‘십장가’가 조선 후기 유흥 공간에서까지 유행한 것은 재미 있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십장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떠한 것인가. 말 그대로 형장의 고통을 노래로 풀어 낸 것인가? 이러한 노래가 유흥공간에서 유행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십장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망의 크기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십장가’가 『춘향전』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사랑가’가 두 사람의 애정 형상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다면, ‘십장가’는 두 사람의 사랑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수난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즉 ‘십장가’는 『춘향전』 내에서 춘향이 자신의 사랑에 대한 의지를 가장 강하게 드러내는 장면이다. 춘향은 ‘십장가’에 드러나는 항거를 통해 기약 없는 이도령의 사랑을 자신의 굳건한 의지로 지켜내어 두 사람의 사랑을 완성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십장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망은 두 사람의 사랑과 애정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일단 ‘십장가’에는 신임 사또의 명령을 거부하는 춘향의 항거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십장가’를 통해 드러나는 춘향 항거의 의미는 자신의 사랑을 지키고자 하는 춘향 개인의 의미에 국한될 수도 있고, 정절이라는 당대 사회의 유교적 이념을 지키고자 하는 윤리적 의미나 상징으로 드러날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신분제의 모순이나 탐관오리의 횡포를 고발하는 사회적 의미를 담아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십장가’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의미망은 몇몇 선행연구

김동진, 「십장가 대목의 전승과 변이 양상 연구」, 『국어국문학』 151호, 국어국문학회, 2009, 178면.

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십장가’에 관한 주요 논의들을 살펴보면, 먼저 ‘십장가’가 고급관리의 호색한적 부도덕성을 통하여 천민 춘향의 도덕적 고행을 극적으로 강조하는 기능을³⁾ 가지고 있거나 춘향의 수난과 그 수난을 열녀로 지양시키는 전환적 기능을⁴⁾ 가지고 있다는 윤리적 측면에서의 연구 성과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이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왜곡된 신분제도의 질곡 때문에 밀어닥친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죽음으로 맞서면서 사랑을 지키려는 춘향의 깨끗한 자세가 잘 드러나는 부분으로⁵⁾ 파악하여 ‘십장가’ 향거의 의미를 춘향의 사랑으로 한정하는 성과도 확인해볼 수 있다. 또한 다른 입장에서 ‘십장가’가 춘향이라는 한 기생의 정절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춘향이라는 한 천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드러내고 있다는 논의도 확인해볼 수 있다.⁶⁾

하지만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십장가’가 『춘향전』 전승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생각해보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춘향전』의 ‘십장가’만을 단독으로 연구한 성과는 불과 두 편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⁷⁾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 성과를 수용하면서 ‘십장가’에 나타나는 춘향 향거 의미의 변화에 연구의 초점을 두도록 한다. 즉 ‘십장가’는 춘향이 한 남자를 향한 사랑 때문에 모진 고난을 이겨내는 형상을

3) 정양, 「신재효의 십장가」, 『판소리연구』 6집, 판소리학회, 1995, 56면.

4) 설성경, 「십장가의 변이상과 본질」, 『연세교육과학』 24집,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83, 120면.

5) 김석배, 「춘향전 이본의 생성과 변모 양상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111면.

6) 춘향의 신분은 작품에 따라서 양반의 서녀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조선시대 종모법에 따라 춘향의 신분이 가장 천한 관기였음은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7) 설성경(1983)과 김동건(2009)의 논의만이 십장가만을 단독연구 대상으로 삼아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구현하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형상이 보여주는 향거가 사회적 의미를 획득하고 있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십장가’에 나타나는 춘향의 향거는 개인적인 의미에서 사회적인 의미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본고에서는 『춘향전』 전승 안에서 ‘십장가’의 존재 양상을 이본의 계열별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십장가’에 나타나는 춘향 향거의 의미 변화를 확인해 보도록 한다.

2. 『춘향전』 ‘십장가’의 존재 양상

‘십장가’란 수청을 거부하는 춘향에게 화가 난 변학도가 태형을 가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춘향의 노래이며, 향거이다. 대체로 춘향이 한 대씩 맞을 때마다 一부터 十까지의 숫자를 두운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정절을 주장하고, 수청 강요의 부당성을 폭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⁸⁾

실상 ‘십장가’는 초기 한문본에서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만화본」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⁹⁾ 하지만, 「만화본」에서도 “곧은 마음 수 절한 걸 죄가 된다고 한 달 동안 관청에서 세 번이나 매 맞았소.”¹⁰⁾ 라는 농부의 발언에서나 혹은 “세 모서리 둥근 곤장 산더미 같이 쌓아두고 곤장 치며 세는 소리 흔백을 잃었더라. 보드라운 살결 뼈마져 부서지듯 종아리에 터진 상처 검은 멍이 들었구나”¹¹⁾라는 춘향의 회고에서 관청에서

8) 김석배(1992), 위의 논문, 111면.

9) 김석배(1992)는 만화본에서 ‘십장가’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18세기 중기까지는 생성되지 않은 대목으로 파악하고 있다.

10) 貞心守節以爲罪 一月官廷三次篊, 「만화본 춘향가」 71구, 『춘향전의 종합적 고찰』, 한국고소설연구회편, 아세아문화사, 1991, 476면.

모진 형장을 맞았음을 드러내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십장가’의 원 형태는 18세기 이전에 그 단초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었음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즉 ‘십장가’와 같은 완성된 형태가 되지는 못했을지라도 『춘향전』이라는 서사 안에서 그 형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분명 중요하게 인식되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후대에 춘향의 태형 부분을 ‘십장가’라는 어느 정도 독립된 대목으로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음은 틀림없다.

따라서 ‘십장가’는 변학도에게 항거하는 춘향의 모습을 數와 관련된 언어유희를 통해 하나의 노래처럼 구성된 대목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각 계열별 ‘십장가’의 존재 양상과 특징을 확인해보도록 한다.

1) 「남원고사」 계열

「남원고사」 계열 ‘십장가’의 존재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세책본 계열인 「남원고사」, 「도남문고본」, 「동양문고본」, 「동경대본」에는 ‘십장가’가 모두 존재한다. 그리고 「동양문고본」을 계승한 것으로 보이는 최남선의 「고본춘향전」에도 마찬가지로 ‘십장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방각본인 경판본의 경우 「35장본」에만 ‘십장가’가 존재하며¹²⁾ 나머지 「30장본」, 「23장본」, 「17장본」, 「16장본」, 그리고 「안성판 20장본」에는 ‘십장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같은 「남원고사」 계열이라 할지라도 세책본 계열과 경판본 계열의 존재 양상은 판이한 성격을 띠고 있다. 먼저 세책본

11) 三稜棍朴積如山 檢杖聲中魂已褫 柔皮軟骨暫時碎 滿脛瘡痕皆黑痕, 「만화본 춘향가」 101~102구, 『춘향전의 종합적 고찰』, 한국고소설연구회편, 아세아문화사, 1991, 475면.

12) 김동진(2009)은 「경판 35장본」의 ‘십장가’가 「충남대소장 42장본」과 「홍윤표소장 154장본」과 유사함을 지적하고 있다.

계열의 ‘십장가’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초창기 『춘향전』 세책본으로 불리는 「남원고사」에도 ‘십장가’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이 등장한다. 「남원고사」의 ‘십장가’는 실상 ‘십장가’라는 정의에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다른 ‘십장가’처럼 춘향의 태형장면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 계집아희 생각하디 저 거동을 보아하니 방송홀 니 만무하다 제 아모리
저리흔들 빙옥갓튼 니 마음과 금석갓튼 구든 뜻지 빅골이 진퇴된들 휘절홀
니 만무하다 일이 발서 이 지경에 니르러시니 현마 엇지허리 죽을 밧기 홀
일 엇다 악을 빼서 호는 말이 일광노 갓튼 우리 도련님을 일조의 니별호고
일신의 뵈친 익한 일구일심 스라지니 일척단검 명을 밧쳐 일뵈번 죽스와도
일심의 정호 마음 일정 변치아니리이다.¹³⁾

위의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남원고사」의 ‘십장가’는 태형장면에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굵게 표시된 부분은 기존의 ‘십장가’처럼 두운에 맞춰 자신의 정절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김석배는 이를 ‘십장가’로 파악하기 보다는 ‘數辭說’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그 명칭이 어떠한 간에 一부터 十까지 두운을 맞추어 자신이 표방하는 애정과 정절의 당당함을 주장하고, 자신의 뜻을 폭압적으로 꺾으려 하는 신임 사또를 비난하고 있다는 내용적 측면에서는 ‘십장가’와 유사하다. 즉 ‘십장가’의 위치와 상황이 다를 뿐 작품 내에서 보여주는 기능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십장가’의 정의와 일치한다.

결국 「남원고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사설’은 분명 ‘십장가’와 동일

13) 김진영·김현주 외, 「남원고사」, 『춘향전 전집』 5, 도서출판 박이정, 1997, 89~90면.
논의를 펼치기 위한 작품의 인용은 김진영·김현주 외 (1997~2004), 『춘향전 전집』에서 하도록 한다. 이본의 명칭을 제외한 수록 권수와 페이지는 따로 명기하지 않는다.

한 것이다. 그리고 이 ‘수사설’은 춘향의 항거의 비장미를 강화하기 위해 태형 장면으로 이동하게 되고 뒤이어 하나의 중요한 더듬으로 발전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실제로 「남원고사」의 ‘십장가’는 다른 이본들의 ‘십장가’와 마찬가지로 풍부한 사설을 가지고 있으며, 「남원고사」라는 이본이 많은 삽입 가요들을 가지고 있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십장가’가 태형 장면에서 불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남원고사」에서 나타나는 ‘십장가’는 태형장면에 등장하지 않는 ‘수사설’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이는 춘향의 항거를 드러낸다는 ‘십장가’의 본래 의미에 어긋나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같은 계열에 속하면서도 방각본으로 출판된 경판본에서의 ‘십장가’ 존재양상이다.

경판본의 ‘십장가’는 앞서 확인해 본 것처럼 「경판 35장본」을 제외하고는 모두 생략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실제로 작품 내에서 ‘십장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춘향이 자신의 애정과 정절을 지키기 위한 항거로 기능하고, 더 나아가 두 사람의 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동시에 작품의 ‘정절’과 ‘열’이라는 주제적 측면을 강조한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춘향이 엇즈오되 고언의 춤신은 불스이군이오 떨녀는 불경이부라 호오니
 스포계셔는 응당 알으실지라 만일 국운이 불힘호여 난시을 당호오면 스포
 계셔는 도적의게 굴슬호시리잇가 신관이 이 말을 듯고 밧비 형츄호라 호니
 나줄이 니다라 춘향을 결박호여 형들의 안친 후의 형방이 다짐스연을 넘혀
 들니니 호여스되 살등 여의신이 근본창기지비로 불고스체호고 슈절괴절이
 호위지곡절이며 또한 신금지초의 관경발악호며 능육관장호니 스킨연이라
 죠 | 당만식이 위선 엄형중치호시는 다짐스연이라 호고 집장 분부호여 미우
 치라¹⁴⁾

위의 예시는 「경판 30장본」으로 ‘십장가’는 생략되어 있지만, 춘향의 항거가 완전히 생략된 것은 아니다. 신임사또는 춘향이 여성으로서 두 남자를 섬기지 않겠다는 자신의 정절을 변학도에게 두 임금을 섬기겠냐는 충의 관념에 빗대어 항거한다. 변학도의 분노가 폭발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임금에게 임명받고 내려온 지방 관리에게 두 임금을 섬길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은 그 존재자체를 혼드는 발언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변학도는 춘향에게 태형을 가하고 그 의미를 설명한다. ‘관정발악’, ‘능욕관장’은 ‘사극해연’이기에 춘향에 대한 태형은 당연하다는 의미이다.¹⁵⁾

결국 「남원고사」 계열에서 보이는 ‘십장가’의 존재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세책본 계열에서는 모두 ‘십장가’가 존재한다. 이는 일단 「남원고사」가 가지고 있는 세책본이란 특성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세책본은 세책가에 의해 대여되는 형태로 유통되었기 때문에 내용이 길고 장편화 될수록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남원고사」는 춘향의 항거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춘향전』 서사 안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십장가’의 존재가 매우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남원고사」는 세책본이라는 독서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춘향전』의 다른 이본들과는 달리 매우 다양한 삽입 문예양식들을 담고 있어 일찍이 주목된 바 있다.¹⁶⁾ 따라서 다양한 삽입 문예양식들을 가지고 있는 「남원고사」 계열의 세책본들은 ‘십장가’와 같이 하나의 노래로 불리워질 수 있는 대목의 필요성을 놓치지 않았을 것으로

14) 「경판 30장본」

15) 특히 이 부분에서는 “살등 여의신이”와 같이 원정과 다짐이 나오는 조선후기 공문서의 용어들이 등장하고, 이는 춘향의 태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용어 사용의 의미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론하기로 한다.

16) 김태준, 「〈남원고사〉의 삽입 문예양식과 그 민중적 성격」, 『춘향전의 종합적 고찰』, 한국고소설연구회 편, 아세아문화사, 1991, 270~292면.

추측해볼 수 있다.

두 번째로 같은 「남원고사」 계열본이지만 방각본으로 유통된 경판본에서의 ‘십장가’의 존재양상이다. 경판본의 유통과정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다. 하지만 방각본이 대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인하긴 쉽지 않을뿐더러, 판매 확대를 위해 절략본과 같은 형태, 즉 긴 내용의 작품을 짧게 축약한 형태가 지속적으로 간행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본다면, 경판본의 ‘십장가’ 생략의 이유는 어느 정도 추론해볼 수 있다. 실제로 경판본 중 가장 긴 35장본을 제외한 나머지 본에서 ‘십장가’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를 잘 설명해준다고 볼 수 있다. 경판 35장본을 제외한 다른 판본에서의 ‘십장가’ 생략 의미는 다음 장에서 상론하기로 한다.

2) 완판본 계열

「남원고사」 계열과 달리 완판본 계열에서는 ‘십장가’가 대부분의 이본에서 존재한다. 즉 방각본인 「완판 26장본」, 「완판 29장본」, 「완판 33장본」, 「완판 84장본」 중에서는 「완판 29장본」이 소략한 형태의 ‘십장가’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모두 ‘십장가’를 가지고 있다. 또한 완판본 계열의 ‘십장가’를 보유하고 있는 필사본도 18종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된다.¹⁷⁾

완판본 계열 ‘십장가’의 특징은 후대본, 혹은 그 이본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십장가’의 내용도 풍부해지며, 춘향의 항거의 의미도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간략하게나마 완판본 각각의 이본별 ‘십장가’의 주요 특징만을 지적해보도록 한다.

먼저 「완판 29장본」은 완벽한 형태의 ‘십장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17) 완판본 계열의 ‘십장가’ 18종은 모두 필사본이다. 가창된 것으로 보이는 창본 2종을 제외한 개수이다. 필사본의 현황은 다음을 참고하였다.

김동건(2009), 앞의 논문, 181면.

‘십장가’의 모습이 드러나긴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즉 「완판 29장본」의 ‘십장가’는 「경판 30장본」에서 보이는 것처럼 춘향의 향거가 드러나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형태의 ‘십장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집장흔는 저 스영놈 나는드시 달녀들어 형틀 압피 변득 서며 에후리쳐 짝 부치니 뇌성벽녀 별락 치듯 듨에 놈의 장적 피듯 각별리 미오 치니 춘향의 약흔 달리 시골하야 부셔지니 옥갓던 두 귀 밋티 흘르난니 눈물이오 쇼스난니 유혈이라 한나 치고 짐작홀가 둘 치고 짐작홀가 이부종스 뜻시 업쇼 셋 넷슬 짝 부치니 스지를 갈녀녀여 스티문의 회시하여도 분부 시형 못하것쇼 다섯 여섯 일곱치 낫슬 짝 부치니 칠거지악 안니여든 이 형별니 어인 일니 요 열 치고 히박홀가 삼십도를 땡중하야 착갈염슈 영니 난니 연약홀 즈로 서 호읍니 막킨 중의 정신을 찰릴손야 그 중의 큰악헌 전목갈을 옥갓던 목의 무릅시고 향시 슈시 족시하고 칼머리에 인봉하고 검멀못 철박하야 옥으로 널리온니 춘향이 통곡하며 일은 말리 국곡투식하야던가 엄형중슈 무슴 일고 살인 조인 안니여든 향시 족시 무슴 일고¹⁸⁾

위의 「완판 29장본」에 나타나는 ‘십장가’는 일단 ‘십장가’의 흔적만 남아 있는 형태로 보인다. 앞서 정의해본 바와 같이 ‘십장가’가 두운을 이용한 언어유희를 통해 태형장면에서 춘향의 향거가 드러나는 것이라면, 위의 ‘십장가’는 그 흔적만 남아있을 뿐 완벽한 형태의 ‘십장가’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십장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춘향의 향거라면, ‘십장가’에서는 비록 나타나지 않지만, 「경판 30장본」과 마찬가지로 태형장면에서 그 향거의 의미가 드러난다. 즉 자신을 충신에 비유하며, 정절을 꺾으려는 신관사또를 충절 없는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완판본에서 드러나는 춘향의 향거는 뒤이은 판본에서 더욱 확장되는 양상을 확인해볼

18) 「완판 29장본 별춘향전」

수 있다.

「완판 26장본」은 ‘십장가’의 언어유희적 형태도 완벽할뿐더러 30대의 태형으로 확장되어 있다. 이러한 양상은 「완판 33장본」도 유사하다. 두 이본의 ‘십장가’는 거의 비슷한 형태를 보이는데, 일단 「완판 26장본」보다 「완판 33장본」이 ‘십장가’가 등장하는 춘향의 태형 장면을 좀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엇비슷하다. 4장 부분에서 ‘事其事’를 통해 관장의 무능력을 지적하는 것도 동일하나, 「33장본」이 이도령의 사랑으로 귀결된다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26장본」의 8장에서는 고사를 들어 자신의 굳은 절행을 강조하고 있다면 「33장본」에서는 신관 사또의 무능함을 직접적인 언사를 들어 공박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또한 「33장본」이 6~7번째 태형을 함께 다루고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29장본」보다 강화된 「26장본」과 「33장본」에서 드러나는 춘향의 항거는 「84장본」에서 절정을 이룬다. 「84장본」은 『춘향전』 이본군이 가지고 있는 ‘십장가’ 중 가장 확장된 형태를 띄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84장본」에 나타나는 ‘십장가’는 춘향의 항거가 개인적인 의미에서 사회적인 의미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말하자면 ‘십장가’라고 부를 수 있는 사설의 앞뒤에 남원 한량과 남원 군민의 춘향에 대한 이해와 동정의 시선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선은 단순히 춘향에 대한 동정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춘향의 처지를 이해하고 춘향과 한편이 되어, 신관사또에 대한 비판이 집중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¹⁹⁾

결국 완판본 계열은 ‘십장가’를 모두 포함하면서, ‘십장가’가 가지고 있는 춘향의 항거 의미가 서사 안에서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장형의 ‘십

19) 김종철, 『판소리사 연구』, 역사비평사, 1996, 166면.

장가를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완판본의 ‘십장가’는 후대본으로 갈수록 그리고 그 이본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춘향의 항거의 의미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3) 옥중화 계열

활자본 춘향전의 이본군은 대개 「옥중화 의 자장권 아래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⁰⁾ 따라서 활자본 춘향전에 등장하는 ‘십장가’는 실제로 「옥중화 의 ‘십장가’와 큰 차이가 없다.²¹⁾ 하지만 「옥중화 의 십장가는 또한 완판본 계열의 ‘십장가’와 매우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특히 30장의 태형으로 확대되는 양상에서 그러하다. 하지만 「옥중화」 계통본의 ‘십장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은 대전통편을 통해 법리적으로 춘향과 신관사또간의 논변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五字(오즈) 낫을 짝 부치니 五字(오즈)로 알외리다 五馬(오마)로 오신 使道(사도) 五倫(오륜)을 밝히시오 五品不順(오평불순)호는 官長(관장) 五刑(오형) 엇지 모르릿가 五十三州(오십삼주) 우리 道內(도내) 五教不行(오교불행) 第一(데일)이오 (使(스)) 네 그 년이 大典通編(대던통편)을 물으논고 나 春香(춘향)이 엇즈오디 (春(춘)) 大典通編(대던통편)이 무엇인디 仔細

20) 활자본 춘향전 이본군의 계통에 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하였다.

서유석, 「20세기 초반 활자본 춘향전의 변모 양상과 그 의미」, 『판소리연구』 24집, 판소리학회, 2007, 133~170면.

21) 「옥중화」 계통본 중에서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십장가’를 가지고 있는 이본은 총 21종으로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춘향전(신옥중가인/절대가인춘향전)」, 「고대소설춘향전」, 「고대소설옥중가인」, 「국어대역연정춘향가」, 「남원옥중화」, 「도상옥중화」, 「만고열녀춘향전」, 「만고열녀옥중화」, 「만고열녀일선문춘향전」, 「만고열녀특별무쌍춘향전」, 「선한문춘향전(증수춘향전)」, 「신역별춘향가」, 「언문춘향전」, 「옥중가인」, 「옥중가화춘향전」, 「옥중화」, 「옥중화춘향전」, 「절대가인」, 「증상연예옥중가인」, 「특별무쌍춘향전」, 「특별옥중가화」

(자세)히 알아지다 使道(스도) 刑吏(형리) 불너 大典通編(대던통편) 니여
 늦코 春香(춘향)에게 제 罪狀(죄상) 일너라 刑吏(형리)가 다시 업쳐 春香
 (춘향)아 드러라 大典通編(대던통편)에 ㅎ얏스되 謀叛大逆(모반대역) ㅎ는
 罪(죄)는 陵遲處斬(릉지처참) ㅎ라 ㅎ고 拒逆長官(거역장관) ㅎ는 罪(죄)는
 嚴治正配(엄치정비) 宜當(의당)이니 너 죽는다 설위말야 春香(춘향)이 엇
 즈오더 大典通編(대던통편)의 法(법)이 그러홀진디 有夫女(유부녀) 強奸
 (강간) ㅎ는 罪(죄)는 엇지 ㅎ라 ㅎ얏노 使道(스도)가 한번을 썬더니 이놈
 조런 妖惡(요악) ㅎ는 년을 어서 썬러라²²⁾

「옥중화 계통본 ‘십장가’의 주요한 특징은 대전통편을 통해 신관사또와
 변학도간의 법리공방이 벌어진다는 점이다. 즉 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
 처럼 태형 중간에 변학도가 대전통편을 들어 춘향의 죄가 법리적으로 어
 떠한 것인지를 확인하자 춘향이 “유부녀 겁탈”을 운운하게 되고 결국
 다시 태형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옥중화 계통본에 등장하는 ‘십장
 가’의 특징은 몇몇 창본에서도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4) 창본 계열

‘십장가’는 『춘향전』 창본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눈대목으로 가능한
 다. 몇몇 소설계 이본군에서는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 ‘십장가’의 내용을
 축소시키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연행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창본
 계열에서는 ‘십장가’는 빠질 수 없는 주요한 대목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창본에서 드러나는 ‘십장가’의 존재양상은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
 다. 이는 ‘십장가’가 각각의 창자들에게 특장 대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
 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춘향전』의 눈대목으로써 ‘십장가’의 사설이나

22) 「박문서관본 옥중화」

음악적 구성에 많은 공을 들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²³⁾

본고에서 주목하고 있는 창본 계열 ‘십장가’의 중요한 특징은 몇몇 창본이 「옥중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전통편 상고 대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조선창극사』의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한다.

다섯째 날을 딱 붙이니, ‘오자로 아뢰리다. 오마로 오신 사또 오류를 밝히시오 오폼불순하는 관장 오형 어찌 모르리까. 53주 우리 도내 오교불행 제일 이오.’ 사또가 분이 나서 하는 말이 ‘네 그년이 대전통편을 모르는구나.’ 춘향이 여쭙우되 대전통편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지다. 사또 형리 불러 ‘대전통편 내어 놓고 춘향에게 제 죄상을 일러라.’ 형리 다시 엎드려 ‘춘향아 들으라. 대전통편에 하였으되 모반대역하는 죄는 능지처참이라하고, 거역관장 하는 죄는 엄형정배 의당이니 너 죽는다 설워 마라.’ 춘향이 여쭙어되 ‘대전통편의 법이 그럴진대 유부녀 겁탈하는 죄는 어찌하라 하였소.’²⁴⁾

위의 예문은 조기홍(趙奇弘)의 특징이었던 ‘십장가’이다. 조기홍은 동편제 명창으로 이동백과 김창룡의 회고에 의하면 훌륭한 명창이었으나 요절한 것이 아깝다 했다. 하지만 조기홍이 고종시대에 활동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위의 ‘십장가’는 매우 이른 시기의 ‘십장가’임은 분명하다. 역시 이 ‘십장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옥중화」에서 찾아볼 수 있던 대전통편을 두고 변학도와 춘향이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장면의 등장이다. 이러한 대전통편 대목은 정정렬제를 계승하는 창본인 「김연수창본」, 「김소희창본」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이 대목은 정정렬제를 계승

23) 창본에서의 ‘십장가’는 거의 모든 창본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본별 편차에만 주목하고 그 세세한 존재양상은 살피지 않는다.

24) 정노식, 『조선창극사』, 동문선, 1994, 172면.

하진 않았지만, 『정광수 창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전 통편 상고대목은 다른 창본들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정정렬제에 영향을 받지 않은 창본을 살펴보면 그 항거의 의미가 앞선 조기홍의 것이 의미하는 바와 다르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즉 지금 전하고 있는 창본의 ‘십장가’를 살펴보면 이도령에 대한 높은 애정, 삼중지도라는 유교의 덕목을 지적하고 가끔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신관의 무능함을 지적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태형에서 춘향의 개인적인 애정과 정절의 치열함을 강조할 뿐이다.

결국 본고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몇몇 창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전 통편을 통한 상고대목이다. 이 장면을 포함하고 있는 ‘십장가’에는 조선시대 관정에서 벌어지는 재판절차, 즉 原情과 다짐이 함께 등장한다. 즉 개인적 차원의 춘향의 항거가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한 개인의 권리가 법이라는 공적 테두리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십장가’가 가지고 있는 춘향 항거의 다양한 의미망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춘향전』 ‘십장가’에 나타나는 춘향 항거의 의미 변화

‘십장가’는 『춘향전』에서 춘향의 사랑과 정절이 가장 강하게 부각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춘향은 ‘십장가’에서 드러나는 항거를 통해 고난을 얻고, 열녀로 거듭날 수 있다. 문제는 이 항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이다.

‘십장가’에서 드러나는 항거의 양상은 일단 개인적인 사랑과 정절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부터 시작된다. 즉 신분제의 모순을 지적하는 사회적인 의미보다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애정과 정절의 문제를 당대 사회의 지배

이념인 유교 윤리에 알맞게 지적하고 있다.

춘향이 일즈 다라 우는 말이 일편단심 춘향이 일조낭군 이별하고 일심의 밋친 한이 일시만정 풀닐손가 일각일시 나미지익으로 일정지심 먹은 마음 이부를 섬기릿가 두를 맛고 흐는 말이 이인심스냥인지라 이월시절 썬난 후의 이균불사 본을 바다 이부불경허려 흐고 이심 두지 아니하여 이비를 쓰로고져 흐노라 세슬 맛고 흐는 말이 삼성의 구든 절기 삼춘갓치 기려스니 삼흔칠빅 훗터지나 삼강디의 노홀소나 삼한갑족 우리 님을 삼산갓치 쓰로리라 네슬 맛고 흐는 말이 스면초지 우리 스도 스셔삼경 다 보시고 스빅년 동방네의를 스이갓치 맞치런들 스지를 분열하여도 사디 청도를 늦치 아니리라 다섯 맛고 흐는 마리 오당늑부 갓건만은 오류헿실 모로시니 오월비상 나의 함원 오즈셔와 일반이라 오형으로 저쥬거나 오츠의 밧기거나 호오 여섯 맛고 흐는 마리 늑출괴산 계갈량도 늑일산을 못 죽엇고 늑상산 진도람도 늑경 늑갑 못 부렸소 늑니청산 헛분부 마오 일곱 맛고 흐는 마리 칠현금 우리 낭군 칠산바다 깃흔 정을 칠월 무인야의 칠성님께 비렸더니 칠종칠금 멩확인 가 칠빅니 동경호의 초흔조나 되오리라 여둑 맛고 흐는 말이 팔원팔기 어니 써며 팔디금강 어디 간고 팔천계즈 강동호걸 팔년풍진 요란하다 팔지 이리 괴박헌가 팔걸의 말을 두 번 마오 아홉 맛고 흐는 마리 구절양장 험흔 길노 구희산 츠자 가니 구룡산 늑근 놓이 구쥬을 못 도라네 구천의 사못친 원이 구원의 맞치리라 열을 맛고 흐는 마리 십악디뢰 오날인가 십면 밧복 맛나고 나 십니강산 유협갓고 십월 광풍 낙엽이라 십성구스홀지라도 십왕전의 빅활 흐오리라.²⁵⁾

위의 예시는 「경판 35장본」에서의 ‘십장가’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판본에서 ‘십장가’가 등장하는 것은 「경판 35장본」이 유일하다. 위의 ‘십장가’는 철저히 춘향이 표방하는 이도령에 대한 애정과 정절을 기반으

25) 「경판 35장본」

로 하고 있다. 1장에서는 일편단심의 마음을 일정지심으로 2장에서는 이 균불사를 본을 받아 이부불경하려 한다는 내용이 나오지만, 이는 단순한 비유일 뿐 사회적인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5장과 6장은 옛 충신들의 고사를 빌어 자신의 한결같은 사랑이 올바른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9장과 10장에서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이도령에 대한 원망과 함께 자신의 뜻을 알아주지 않고 관장의 권한과 폭력을 통해 한 개인의 애정과 정절을 꺾으려는 변학도에게 죽음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즉 「남원고사」 계열에서 보이는 춘향의 향거는 지극히 개인적이다. 기생인 춘향이 보여주는 이러한 향거는 정절이란 사회적 섹슈얼리티가 요구되지 않는 기생 춘향 개인적인 모습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춘향은 기생이란 정절이 필요치 않은 신분에 귀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변함없는 사랑과 애정을 지켜냄으로서 당대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정절이란 도덕을 스스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적 신념에 의한 춘향의 향거는 관가를 한갓 관가의 재산으로 치부하는 변학도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기도 하다.

따라서 「남원고사」 계열에서 춘향의 향거는 민중적이거나 사회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남원고사」 계열의 경우 춘향의 향거와 신임사또의 분노는 춘향의 “춘향이 옛즈오더 충신은 불스이군이요 널녀는 불경이부라 호오니 만일 국운이 불헿호여 논시를 당호오면 스폐게셔는 도적의게 굴호시리잇가” 라는 단 한마디에서 비롯된다.

이는 춘향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수절권이라는 사적인 영역과 관가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신임사또의 공적인 영역이 충돌한 부분이다. 하지만 신임사또의 공적 권력은 실상 개인의 관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사적인 영역(춘향의 수절을 원하는)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 변화도는 부임 초기부터 민생에는 관심이 없고, 색을 밝히는 호색한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춘향의 대비정숙과 같은 신분의 변화에는 관심이 없다. 그저 남원에 이름난 기생 춘향에게 관심이 있을 뿐이고, 춘향의 사랑과 정절 따위에는 애초부터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스또의 마음인즉 뒤가 물너 이 형상을 보고 인물을 아주 구괴이고 혀를
 츀며 속으로 흐는 말이 아무리 무지흔 시골놈인들 주뢰로 죽일 놈이로다 저
 리 고은 계집을 그리 몹시 박아칠 심술이 불양흔 망난의 아들놈이 또 어디
 이시리오 속이 부적부적 조냐 못 보갓다 인물이 조만흐니 마음인들 구드라
 마는 고디지 아득흐여 씨닷지 못흐는가 이러툃 앓기면서 삼십도 밍당흐니
 마령 못된 경이로다.²⁶⁾

위의 예시는 태형을 맞고 있는 춘향에 대한 신관사또의 재미있는 심리를 잘 드러내고 있다. 신관사또는 춘향을 엄하게 매질하고 있는 집장사령이 도무지 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신이 때리라 명해놓고서는 때리는 사람이 미워보인다는 것은 「남원고사」가 가지고 있는 해학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관이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을 방해하는 하나의 기능적인 인물로 등장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을뿐더러, 동시에 「남원고사」 계열의 ‘십장가’가 담고 있는 춘향의 항거가 춘향의 개인적 사랑과 정절에 국한되어 있는 것임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신관사또의 행동은 해학적인 성격을 가지게 됨과 동시에 ‘십장가’에서 드러나는 춘향의 항거가 가지고 있는 비장함을 약화시키고, 동시에 그 항거의 의미가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 이외에 다른 부분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매질을 시켜놓고 불쌍

26) 「남원고사」

해하는 신관은 사회적 모순을 드러내는 인물로 기능할 수 없고, 그저 아름다운 청년 남녀의 사랑을 훼방놓는 방해꾼으로 격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원고사」 계열의 ‘십장가’에서 드러나는 춘향 항거의 의미는 이도령에 대한 개인적 애정과 이를 지키기 위한 항거는 춘향이라는 개인의 정절의 의미로만 국한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십장가’는 춘향을 열녀로 만드는 데, 그리고 춘향과 이도령 두 사람의 애정, 두 가지에만 그 의미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셈이다.

하지만 다시금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는 경판본에서 「35장본」을 제외한 다른 판본에서의 ‘십장가’ 생략이다. 이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방각본의 상업적 유통을 위한 목적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십장가’를 생략하는 대신 태형을 확대하여 ‘십장가’가 가지고 있는 춘향 고난의 의미를 대신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²⁷⁾ 문제는 태형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춘향의 고난이 가중될 뿐 춘향의 항거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십장가’가 춘향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통해 춘향의 사랑과 정절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이러한 춘향 목소리의 삭제는 기생 춘향이 드러내는 항거의 목소리에 침투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각, 즉 춘향의 항거를 통해 일체화할 수 있는 독자들의 사회적인 시선을 제거하고, 동시에 춘향의 고난만을 강조하여,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을 두 사람만의 문제로 국한시키려는 의미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완판본에 외서는 다른 양상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김종철은 춘향의 정절이 작품 내 주변인물에게서 칭송을 받는 양상이 ‘별춘향전’ → ‘병오판’ → ‘완판 84장본’의 순서, 즉 후대로 갈수록 강화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특징은 춘향을 이상화하고 민중들 스스로가 도덕적 엄격성과 의지를 강화하는 양상으로 드러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²⁸⁾

27) 김동진(2009), 앞의 논문, 180면.

일부중사혹을 년이 일심으로 구더쁘니 일역으로 호오릿가 ㉠ 두치 낫슬
 짝 부치니 불경이부 이너 심사 이 밋 맛고 죽인더도 이도령은 못 잇것소 ㉡
 세치 낫슬 짝 부치니 삼중지도 지중흔 범 삼강오륜 알아쁘니 삼치형문 경비
 하여도 분부시형 못흐것소 ㉢ 네치 낫슬 짝 부치니 사더부 사또님은 사괴스
 를 모로시오 스지를 갈너니여 스티문의 회시하여도 사부집 도령임은 못 잇
 것소 ㉣ 다섯치 낫 짝 부치니 오미불망 우리 사랑 오날이나 소식 올가 니일
 이나 기별 올가 ㉤ 여섯 일곱 짝 부치니 육시하여 쓸터 잇소 칠척검 드난
 칼노 동동 장글르제 형장으로 칠 것 잇소 ㉥ 야달치 낫 짝 부치니 팔도방빅
 수령임네 치민허러 내려왓제 확정허러 내려왓소 ㉦ 아홉치 낫 짝 부치니 구
 곡간장 흐르난 눈물 구천의 사뭇츠니 주긴더도 썰터업소 ㉧ 열치 낫 짝 부치
 니 십실부로도 춤여리 잇삽거든 고금 허다 창기 중의 열녀 혼나 업스릿가 29)

‘십장가’가 부분만을 비교해보더라도 춘향의 향거는 완판본 계열에서 「남원고사」 계열보다 더 강한 향거가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향거가 춘향의 개인적인 의미에서 사회적인 모순을 지적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1장과 2장의 내용은 경판본과 별 다를 바가 없다. 이도령에게 일부중사하겠다는 개인적 신념, 애정을 바탕으로 한 정절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3장도 유사하다. 삼중지도라는 유교적 여성윤리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4장에서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事其事’를 모르냐는 지적은 관장의 무능함을 있는 그대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事其事’란 말 그대로 일을 일 그대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니, 변학도는 올바르게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한 관장이란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5장부터 7장까지는 역시 변하지 않는 이도령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지만 8장에 이르러서는 다시

28) 김종철(1996), 앞의 책, 156~163면.

29) 「완판 33장본」

사회적인 의미가 부각된다. 백성을 다스리러 내려왔지, 학정하러 내려왔느냐는 춘향의 발언은 실상 춘향과 변학도 사이의 애정에서 비롯된 문제를 사회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는 셈이다. 즉 춘향은 실상 자신의 정절을 강조하고자 하는 ‘십장가’를 통해 변학도의 무능함과 학정의 실태를 담론화 함으로써 정절이란 당대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던 관념을 지키고자 하는 춘향 개인의 사적인 영역의 문제를 관장의 무능함과 학정이라는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러한 확대적 양상은 춘향의 항거가 더 이상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인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춘향이는 제절노 셔름 제워 마지면서 우난디 일편단심 구든 마음 일부중 사 쓰시오니 일기 형별 치읍신들 일언이 다 못가서 일각인들 변하릿가 ㉠
 잇찌 남원부 할양이며 남여노소 업시 묘와 구경할 제 좌우의 할양더리 모지구나 모지구나 우리 골 원임이 모지구나 저런 형벌리 웨 잇시며 저런 미질리 웨 잇솔가 집장사령놈 눈익켜 두워라 삼문 밧 나오민 급살을 주리라 보고
 듯난 사람이야 뉘가 안이 낙누하라 ㉡ 두치 낮 썩 부치니 이부절을 아읍난디 불경이부 이니 마음 이 밧 맛고 영 죽어도 이도령은 못 잇것소 ㉢ 세치 나설 썩 부친이 삼중지에 지중한 범 삼강오륜 알아쓴이 삼치형문 정비을 갈지라도 삼천동 우리 낭군 이도령은 못 잇것소 ㉣ 네치 나설 썩 부치니 사티부 사또임은 사면공사 살피잔코 우력공스 심을 쓰니 사십팔방 남원 빅성 원망 하물 모르시오 사지를 같은디도 사싱동거 우리 농군 사싱간의 못 잇것소 ㉤
 다섯 낮치 썩 부치니 오륜륜기 끈치잔코 부부유별 오형으로 밧진 연분 올올 리 찌저년들 오미불망 우리 낭군 온전이 싱가나네 오동추야 밧근 달은 임 게신 디 보련만은 오늘이느 편지 올가 니일이느 기별 올가 무죄한 이니 몸이 악스할 일 업썩온이 오경자수 마읍소셔 익고 익고 니 신세야 ㉥ 여섯 낮치 썩 부친이 육육은 삼십육으로 낮낫치 고찰하여 육만번 죽인디도 육천 마디 열인 사랑 밧친 마음 변할 수 전이 업소 ㉦ 일곱 나설 썩 부치니 칠거지악

범하였소 칠거지악 안이여든 칠기형문 웬 일이요 칠척금 드는 칼노 동동이
 장글너서 이제 빗비 죽여주오 치라 하는 저 형방아 칠 씨마닥 고찰마소 칠보
 흥안 나 죽건네 ㉠ 아달치 닛 싹 부친이 팔자 조흔 춘향 몸이 팔도방빅 수령
 중의 제일 명관 맛나구나 팔도방빅 수령임네 치민하러 내려왓제 악형하러
 내려왓소 ㉡ 아흠 닛치 싹 부친이 구곡간장 구부셔어 이니 눈물 구연지수
 되것구나 구구청산 장송 베여 경강선 무어 타고 한양성중 급피 가서 구중궁
 켈 성상전의 구구원정 주달하고 구정 뜰의 물너나와 삼천동을 차자가서 우
 리 사랑 반기 만나 구비구비 밋친 마음 저근듯 풀연마는 ㉢ 열치 닛설 싹
 부친이 십성구사 할지라도 팔십 연 정한 쓰설 십만 번 죽인디도 가망업고
 무가니지 십녹세 어린 춘양 장하원귀 가련하오³⁰⁾

「완판 84장본 도 「33장본 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십장가’를 통한 춘향의 항거에서 「33장 만큼의 직설적인 표현은 드러나지 않지만, 그와 비슷한 양상과 형태를 보이고 있음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4장에서 사면공사를 살피지 않고 위력공사만을 힘써 남원백성들을 보살피지 않는다고 지적하여 역시 애정의 문제를 사회의 문제로 확대하고 있으며, 8장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제일 명관 만났구나’와 같은 반어적 표현을 통해 신관의 무능함을 비판함과 동시에 백성을 다스리러 내려왔지 악행하러 내려왔느냐는 지적으로 역시 신관의 악행이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닌 사회적이고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84장본 의 ‘십장가’는 매우 길어진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십장가’ 안에 다양한 인물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³¹⁾ 즉 앞서 2장에서

30) 「완판 84장본」

31) 김종철(1996)은 84장본의 ‘십장가’에서 목낭청의 역할을 회계생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그 회계생원은 권력자의 주구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 결국 춘향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역시 「84장본」의 ‘십장가’에 나타나는 춘향의 항거가 개인적인 의미가 아님을 잘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살펴본 예시문에서와 같이 한량이나 관청 주변 사람들의 동정어린 시선을 통해 ‘십장가’에 나타나는 춘향의 항거는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84장본」의 ‘십장가’에 나타나는 춘향의 항거가 사회적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은 춘향의 신분 변동과도 밀접한 관련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 「완판 26장본」과 「완판 33장본」에서 춘향의 신분은 모두 기생이다. 하지만 「84장본」에서는 양반의 서녀로 나온다. 물론 조선시대 신분제도의 종모범을 생각해볼 때 춘향의 신분이 양반의 서녀로 기술된다 할지라도 춘향이 기생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당연하다. 하지만 문제는 「84장본」에서 스스로를 ‘유부녀’라고 칭하고 있다. 이는 비록 기생이라는 천민의 신분에 속하지만, 자신의 결혼권에 대해 춘향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동시에 여염의 여자, 즉 유부녀가 관정의 부당한 겁탈에 정식적으로 항의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문제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84장본」에서 춘향이 얻을 수 있는 민중들의 동의는 기생 춘향의 열정적인 항거때문이 아니라, 여염의 유부녀인 춘향, 즉 민중들 스스로와 같은 위치의 한 개인이 당하는 폭력에 대한 항거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³²⁾

김종철의 논의대로 19세기 후반에서부터 20세기 초반 『춘향전』에는 당대 사회의 변화양상의 흔적들이 곳곳에 녹아있다. 특히 “「별춘향전」과 「병오판」이 기생이라는 특수한 신분의 춘향을 전형적 인물로 내세워 평민들

김종철(1996), 앞의 책, 164면.

32) 물론 ‘십장가’에 나타나는 한량이나 남원부중들의 춘향에 대한 성원이 꼭 춘향의 신분이 여염집 유부녀, 즉 평민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신동훈(1995)은 「신학균소장 별춘향가」를 통해 민중적 정서가 춘향전의 보편적 주제일 수 있음을 이와 비슷한 예시를 통해 논의한 바 있다.

신동훈, 「평민 독자의 입장에서 본 춘향전의 주제」, 『판소리연구』 6집, 판소리학회, 1995, 161~218면.

의 반봉건성을 표출했다면 「84장본」은 평민으로서의 춘향을 그 전형으로 내세워 반봉건성을 표출했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견해는 타견이며, 특히 ‘십장가’가 보여주는 춘향 항거의 의미 변화 양상을 잘 입증하는 논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옥중화」 계통본에서 나타나는 대전통편을 통한 상고대목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더 진전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즉 「옥중화」 계통본에서 나타나는 법리공방은 당대의 향유층이 춘향을 자신들과 같은 하나의 평민의 대표로 인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하나의 온존한 개인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변화된 향유층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십장가’의 존재양상에서처럼 대전통편을 통한 법리적 논리공방이 벌어지는 ‘십장가’는 대부분 관청에서 벌어지는 재판의 과정이 ‘십장가’에 그대로 실려 있다.

(使(스)) 刑吏(형리) 거긔 잇느냐 (刑(형)) 예—의 刑吏(형리) 待令(더령) 候(호)얏소 (使(스)) 저 년을 썩려죽일 터이니 다짐 쓰라 (刑(형)) 예—의 刑吏(형리) 다짐 써서 分付(분부)호되 汝(너)矣身(의신)이 娼家少婦(창가소부)로 不從官長之嚴令(부종관장지엄령) 호고 發惡拒逆(발악거역) 호니 身爲賤妓(신위천기)로 藉稱貞節(자칭정절)이 罪當萬死(죄당만스)라 卽爲打殺(즉위타살) 호야 以一(일)懲百(이일증백) 호리니 죽기를 설워 말나 刑吏(형리) 다짐狀(장)을 들고 尼(니)려가 春香(춘향)다려 다짐두라 호니 春香(춘향)이 다짐 호되 조금도 屈(굴)치 안코 鎗杖(털장)갓치 다짐둔다 한 一字(일즈) 드르르 그은 後(후)에 마음 心字(심즈) 그 아러 쓰고 못터를 너던지여 요만 호고 안졌고나³³⁾

먼저 신관은 춘향의 수청거부에 불같이 화를 내고 형리를 시켜 매질을 시킬 준비를 한다. 그리고 무작정 매질이 실시되는 것은 아니다. 위의 예

33) 「보급서관본 옥중화」

문에 표시한 것과 같이 춘향의 죄목이 무엇인지 명백히 밝히고 그에 따른 다짐을 밝혀두고 있는데 이는 공문서의 상투어구로 확인되는 것이다.³⁴⁾ 즉 대전통편을 통한 법리공방이 이루어지는 ‘십장가’는 모두 이러한 원정과 이에 따르는 다짐이 반드시 존재한다.³⁵⁾ 창본에서는 이러한 대목이 정정렬제에 주로 보이는데 「김소희 창본 과 「김연수 창본 에서 동일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전통편 상고의 시작은 「옥중화 에서부터이다.³⁶⁾ 하지만 이러한 원정과 다짐이 나오는 대목은 「남원고사」에서도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남원고사 의 원정과 다짐에서는 「옥중화 계통본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법리다툼은 일어나지 않는다.

형리 듯거라 더 년이 범을 모른다 디전통편 니여눅코 춘향이 죄상을 닐러라 형리 다시 업쳐 디전통편에 춘향아 드러라 거역관장호는 죄는 엄치정비하라 흐엿다 춘향이 옛즈오더 디전통편에 법이 그리홀진디 유부녀 강간호는 죄는 엇지하라 흐얏소 스포 한번을 썬더니 이놈 저런 요망호는 년을 어셔 쓰려라³⁷⁾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옥중화」에서는 대전통편이라는 법전을 근거로 두 사람이 대립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변학도는 대전통편에 따

34) 조선시대 고문서 중 억울한 일을 살피달라는 原情 문서를 살펴보면 예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어투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汝矣身”과 같은 표기가 그러하다. 전경목 외 옮김, 『儒筭必知』, 책세상, 2006, 145~168면.

35) 원정을 올리고 다짐을 받는 공문서의 어투는 대전통편 상고대목이 없더라도 다른 이본에서도 종종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대전통편 상고대목이 있는 이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문서의 어투와 재판의 과정이 빠지지 않는다.

36) 물론 『조선창구사』에 나와있는 조기홍의 ‘십장가’에서도 동일한 대목을 확인할 수 있고, 조기홍이 고종시대 명창인 것을 생각하면 더 앞선 결과물일 수도 있겠으나 이는 후대의 조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박기홍의 창본을 이해조가 산정한 것으로 알려진 「옥중화」의 기록이 더 정확하다는 점에서 「옥중화」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본다.

37) 「보급서관본 옥중화」

라 거역 관장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시킨다. 하지만 이에 춘향도 지지 않는다. 자신이 유부녀임을 밝혔으니 신관사또의 행위는 유부녀를 겁탈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대립이 드러나는 ‘십장가’는 앞서 살핀 예문에서와 같이 정식적인 재판 절차에 대한 묘사가 반드시 함께 한다. 특히 더욱 재미있는 점은 「옥중화」에서는 「84장본」과 다르게 작품 중간에 분명히 신관사또가 춘향을 다시 기안에 착명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신관은 대전통편을 통해 춘향의 죄를 다시금 확인하는 분명한 법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법을 통해 논박을 벌이는 모습은 분명히 한 개인의 권리가 법이라는 공적인 영역에서 지켜질 수 있다는 의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 개인의 권리가 법을 통해 보호 받을 수 있다는 분명한 의식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원정과 다짐이 등장하는 정식적 재판절차의 묘사를 통해 ‘십장가’에 구현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목이 「옥중화」 계통본과 이에 영향을 받은 창본에 존재하는 것은 바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 급변하는 당대의 시대상 속에서 변화하는 향유층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즉 당대 향유층은 처음에는 기생인 춘향이 보여주는 정절을 통해 당대 사회의 모순을 인식해나가다가, 여염집 유부녀이자 평민인 춘향을 통해 그 사회적 의식을 확대하고 나중에는 한 개인의 권리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은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춘향 항거의 의미 변화는 지금 주로 불리워지고 있는 창본에서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현전하는 창본에서 나타나는 춘향 항거의 의미는 2장에서 살피본 바와 같이 ‘십장가’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 의미, 즉 춘향의 애절한 사랑과 정절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20세기 초반 활자본 춘향전이 보여주는 서사가 주로 두 남녀 간의 애정과 사랑에 집중화되는 양상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³⁸⁾ 즉 『춘향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모순에 대한 항거의 의미가 시대적 의미를 잃어가기 때문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활자본 춘향전에 나타나는 사랑과 애정의 서사 집중화는 『춘향전』이 가지고 있던 민중적 항거의 의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장한 현상이며, 동시에 『춘향전』이 가지고 있던 남녀관계가 새롭게 조망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옥중화 계통본에서 등장하는 이러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의식은 오히려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을 사회적인 의미보다는 개인적인 의미의 사랑으로 그 범위를 축소시키고 있다. 즉 『춘향전』이 보여주는 이를 수 없는 기녀와 양반의 사랑은 민중의 대변자로서의 춘향의 신분이 격상되면서 동시에 그 향유층의 의식도 상승되었기 때문이다. 춘향의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춘향의 고난과 항거가 더 이상화될수록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은 사회적인 의미에서 개인적인 의미로 축소되는 것이다.³⁹⁾ 이는 『춘향전』의 향유층이 기존의 도덕관념인 유교적 정절을 더욱 내재화하면서 춘향의 사랑을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옥중화 계통본과 그 이후의 『춘향전』들은 이러한 양

38) 20세기 초반 활자본 춘향전의 변화 양상과 의미는 다음의 논의를 참고하였다.

서유석(2007), 앞의 논문, 133~170면.

39) 실제로 「옥중화」는 이도령의 부모가 남원을 떠나며 춘향에게 그간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대목이 등장한다. 그리고 신관은 춘향을 불러오기 전 그를 기안에 착명시킨다. 이러한 서사변개는 두 사람의 사랑이 사회적 의미를 획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거한다. 즉 춘향은 기생이지만, 이미 이도령의 집안에서 인정하고 있는 존재이며, 또한 신관도 법리적 근거를 통해 춘향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황에서는 춘향의 항거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의미는 두 사람의 사랑과 춘향의 정절에 관한 문제로 국한될 것이다.

상을 그대로 받아들여 춘향을 지고지순한 사랑의 화신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춘향의 이러한 변화는 더 이상 춘향의 사랑이라는 개인적 문제나 사랑에 의한 그 항거가 신분의 모순을 벗어나려는 사회적 의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서 주체적인 애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삶의 문제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춘향의 사랑이 이렇게 주체적인 애정의 문제로 확대되었다면, 당연히 ‘십장가’에 등장하는 춘향 항거의 의미도 자신의 사랑과 정절을 지키는 의미로 국한될 수밖에 없다.

4. 결론

본고는 소략하게나마 『춘향전』 ‘십장가’의 존재 양상을 살피고, ‘십장가’에 나타나는 춘향 항거의 의미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십장가’는 『춘향전』에서 춘향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몇 안 되는 부분 중 하나이다. 그리고 본고가 ‘십장가’를 주목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십장가’에는 『춘향전』의 다른 어느 부분보다 춘향이라는 한 개인의 온전한 목소리가 드러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작품의 등장인물이 드러내는 목소리는 단순히 한 인물만의 것이 될 수는 없다. 특히 판소리가 다성(多聲)적인 언어로 구성되어 있고, 동시에 다양한 계층의 시각들이 상호침투가 가능한 갈래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주목해야 할 것은 ‘춘향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당대 향유층의 다양한 목소리일 것이다.

‘십장가’는 표면적으로는 한 기생이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정절과 한 남자에 대한 사랑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항거처럼 보인다. 하지만 춘향이 가지고 있는 한계 상황은 단순히 춘향 개인의 것만이 될 수는 없었다. 처

음 기생 춘향이 보여주는 항거는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한 개인의 사랑과 정절에 대한 항거였다. 그리고 그 항거는 ‘십장가’에 드러난 유교적 윤리와 수많은 고사, 그리고 이를 통한 언어유희로 고급스럽게 포장되었다.

하지만 기생 춘향이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정절을 지키고자 하는 ‘십장가’의 항거는 춘향 개인의 것만이 될 수 없었다. 춘향이 드러내는 항거의 목소리에는 당대 『춘향전』 향유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개입된다. 천민 기생 춘향의 항거는 처음에는 한 개인의 문제였지만, 그 이후에는 신분제의 모순을 지적하는 사회적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그리고 춘향의 신분은 기생임이 분명하지만, 여염의 여자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춘향의 항거는 이제 더 이상 춘향 개인의 문제가 아니게 된다. 완판본 계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십장가’ 내의 다양한 목소리들은 춘향의 항거가 비단 춘향의 문제가 아닌 당대 사회의 모순을 드러내는 집합점이 될 수 있었고, 기생이 아닌 양반의 서녀이자 민중의 대변자와 같은 평민 춘향의 목소리는 당대 향유층의 달라진 의식 세계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좋은 장소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변화된 춘향 항거의 의미는 근대적 지향의 개인 의식을 내포하게 된다. 대전통편을 통한 법리적 공방이 그것이다. 한 개인의 권리는 정당한 과정을 거쳐 법리공방을 통해 확인받을 수 있는 문제가 되고, 『춘향전』의 서사는 이러한 상황을 작품 문면에 오롯이 드러내게 된다. 「옥중화」 계통본이 보여주는 개작의 방향과 ‘십장가’의 변화가 바로 그 증거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근대 지향의 개인 의식의 성장은 춘향의 사랑을 이상화시키며, 동시에 춘향의 항거 또한 숭고한 것으로 만들었다. 즉 ‘십장가’의 항거 의미가 춘향 자신의 개인적 사랑을 지키기 위한 숭고한 노력으로 격상된 것이다. 이는 사적인 영역의 문제가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된 다음 그 사적인 영역이 공적인 영역의 문제를 포함하게 되는 현상과 유사

하다.⁴⁰⁾ 즉 개인의식의 성장과 한 개인이라는 사적 존재의 등장을 암시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결국 ‘십장가’에 나타나는 춘향 항거의 의미는 사회적인 의미망에서 벗어나 춘향 개인의 사랑과 정절의 문제로 환원된다. 이는 더 이상 춘향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낼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이며, 『춘향전』의 향유층이 ‘십장가’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자신의 애정과 정절을 위한 숭고한 춘향의 희생에 국한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녀관계를 통해 드러낼 수 있는 사회모순의 문제를 『춘향전』이 더 이상 담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고는 아직 미진한 논의를 담고 있다. 짧게나마 ‘십장가’에 나타나는 춘향 항거의 의미 변화를 살펴보았지만, 더 정밀한 논의를 위해서는 『춘향전』의 시대적 전승에 따른 향유층의 의식에 대한 더 면밀한 논거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 개인의 사적 영역이 드러나고 근대적 개인의식의 단초를 찾아보고자 한 본고의 논의가 더욱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개인’의 탄생과 근대적 의식의 맹아 양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건, 「십장가 대목의 전승과 변이 양상 연구」, 『국어국문학』 151호, 국어국문학회, 2009. 177~207면.
 김동욱, 『증보 춘향전 연구』,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6.
 김석배, 『춘향전 이본의 생성과 변모 양상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111면.

40) 필립 아리에스 외, 이영림 옮김, 『사생활의 역사』 3권, 새물결, 2003, 30면.

- 김중철, 『판소리사 연구』, 역사비평사, 1996~2004.
- 김진영, 김현주 외, 『춘향전 전집』, 도서출판 박이정, 1996.
- 서유석, 「20세기 초반 활자본 춘향전의 변모 양상과 그 의미」, 『판소리연구』 24집, 판소리학회, 2007, 133~170면.
- 설성경, 「십장가의 변이상과 본질」, 『연세교육과학』 24집,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83, 120면.
- 신동훈, 「평민 독자의 입장에서 본 춘향전의 주제」, 『판소리연구』 6집, 판소리학회, 1995, 161~218면.
- 정노식, 『조선창극사』, 동문선, 1994.
- 정 양, 「신재효의 십장가」, 『판소리연구』 6집, 판소리학회, 1995, 56면.
- 필립 아리에스 외, 이영림 옮김, 『사생활의 역사』 3권, 새물결, 2003
- 한국고소설연구회 편, 『춘향전의 종합적 고찰』, 한국고소설연구회편, 아세아문화사, 1991.

ABSTRACT

A Study on the Meaning Changes of Chunhyang's Resistance in
'sipjangga'

Seo, You-Seok

This article focuses on '*sipjangga*' which is considered the highlight of *ChunHyangjeon* and examines the aspect of existence by version and attempts to examine the aspect of changes in the meaning of *ChunHyang's* resistance embodied in the '*sipjangga*.'

The '*sipjangga*' in the category of '*namwongosa*' sometimes showed the aspect of being contracted or deleted for commercial purposes and, at the sametime, of being expanded for the purpose of standardization of the literary work. This is also due to commercial purposes contained in *sechekbon* and *bangakbon*. The '*sipjangga*' appeared in *wanpan* versions show the meaning of the resistance being expended from personal aspect to social aspect. So it can be said that the version in which *Chunhyang's* resistance is best represented through the '*sipjangga*' is *wanpan 84jang* version. *Okjunghwa* type versions shows a new aspect of trying to secure the rights of the individual in the public framework of law through describing the appeal hearing and trial procedures in the *daejeontong-pyeon*

The meaning of Chunhyang's resistance represented in the '*sipjangga*' begins with hopeless love between gisaeng ChunHyang and yangban young bachelor and the woman's struggle to attain the love and the resultant issue of chastity. However, Chunhyang's status as *gisaeng* acted as an important issue that separated the pair of lovers and, under these circumstances, ChunHyang's resistance appears to obtain the new social meaning to denounce the contradiction of the social status. Such aspects are represented in changes in *wanpan* version in detail in that the *wanpan* version raises the status of ChunHyang, thereby showing that

ChunHyang's resistance is not a personal issue of gisaeng ChunHyang but can be an issue of a commoner ChunHyang i.e. of all the general public's issue. And such changes obtain civilrights consciousness and the new meaning of resistance to have the rights of the individual protected legally, but such new consciousness of the rights of the individual weakens the social meaning of the love of the two lovers and their suffering of their struggle to attain their love, resulting in returning again to the issue of personal love between ChunHyang and Idoryeong. And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sipjangga*' lies in the center of changes in the meaning of ChunHyang's such resistance.

Key Words Chunhyangeon, sipjangga, resistance, modern intention, a private person

| |
|----------------------|
| 논문투고일 : 2009. 10. 18 |
| 심사완료일 : 2009. 11. 22 |
| 게재확정일 : 2009. 12. 04 |